

“1%대라는데…내 생활물가는 왜 높지?”

통계청 ‘나의 물가 체험하기’ 프로그램 직접 측정해보니

농산물 등 구입 품목으로 측정

체감 상승폭 2.7%로 ‘평균’

전체 소비자물가 1.3% 대조

소비자물가가 심상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며 2개월째 1%대를 기록했다. 특히 배추와 무가 2배가량 값이 오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품목만을 놓고 볼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 폭은 더욱 크고, 광주지역의 물가 상승률도 가파르다.

실제, 1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자가 직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를 통해 확인한 지난 10월 나의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 상승했다. ‘나의 물가 체험하기’는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구입한 품목을 선택해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는 품목과 서비스를 제외하고 실제 구입 품목만을 놓고 물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생활 물가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지역에 따라 물가 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를 정확하게 알 수 도 있다.

이처럼 전체 물가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농수산물 등 생활에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생활물가 상승률은 2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올해 2월(1.3%)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중 소비자들의 구입이 잦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1%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60%포인트 끌어올렸다. 9월

상승폭(10.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은 10.3%나 뛰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1%, 5.3% 상승하며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신선채소가 42%나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배추(143.6%), 무(139.7%) 등 일부 농산물이 100% 이상 가격이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유류 가격은 5.7% 떨어졌지만 전달(-7%)보다 하락 폭은 줄었다.

전기로 인하로 9월 13.9%나 떨어졌던 전기·수도·가스는 전기로 인하 효과가 소멸하면서 8.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체 물가 기어오도 -0.64%포인트에서 0.39%

포인트로 축소됐다.

저유가 여파가 여전했지만 여름철 전기료 한시적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락 폭이 전달보다 작아진 것이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은 각각 2.4%, 0.8%, 2.0%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식품·비주류 음료가 1년 전보다 5%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69%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과자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출고가가 올라간 탓이다. 음식 및 숙박은 2.2%, 교육은 1.6% 오르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부산·대구·광주가 각각 1.6%, 서울과 전남은 각각 1.5% 상승했다. 그 외 시도는 0.9~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은 광주(1.9%)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1.7%), 경북(1.7%) 등이 뒤를 이었다.



7%, 경북(1.7%) 등이 뒤를 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항생제 한우 60% 할인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소비자가 ‘한우데이’를 맞아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무항생제 한우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일까지 무항생제 한우를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맥주·콜라값 줄줄이 인상…라면값도 오르나

라면 업계 “아직 계획 없다”

올해 내내 이어진 식품 가격 인상 행렬에 맥주와 콜라가 동참하면서 라면값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주를 시작으로 과자, 빙과류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운데 그동안 시장에는 맥주와 라면값 인상설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으로 나돌던 맥주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자 이제는 라면값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가격 인상 계

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1일 “현재 라면값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경비절감과 부대찌꺼기 등 신제품 판매, 수출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도 “라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라면은 오랜 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은 데다 곡물 가격 상승 등 원가 압박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百 부지내 면세점 검토”

특급호텔 건립 늦어져 건물에 우선 설치

광주신세계는 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현 이마트 부지 등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과 관련, 면세점을 현재 백화점 부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애초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현재의 이마트를 허물고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면세점, 백화

점, 특급호텔을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건립이 다소 늦어지면서 시내 면세점 허가 등을 위해 백화점 건물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지구 단위계획서를 이달 내에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7.39 (-0.80) ↑ 금리 (국고채 3년) 1.45% (+0.01)

↑ 코스닥 626.38 (+1.70) ↓ 환율 (USD) 1139.90원 (-4.60)

기아차 1만대 10% 할인해 드려요

모닝·스포티지 등 12개 차종…3~10%

기아자동차는 1일 “모닝, K3,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 12개 차종 1만대를 선착순으로 최대 10%까지 할인해 판매하는 ‘기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달 정부가 주관한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주요 차종 총 5000대를 할인된 가격에 완판하자 이번엔 할인 행사를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기아 세일 페스타’는 이날부터 차종별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차종별로 보면 경차 모닝에는 10%의 할인이 적용돼 구매자는 108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3의 경우 8%의 할인을 통해 124만원에서 최대 194만원까지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7%의 할인이 적용되는 K5는 159만원에서 최대 224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포티지는 4%의 할인을, 쏘렌토는 3%의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기아차는 “더 많은 차량 대수와 더 높은 할인 혜택으로 돌아온 기아차의 통 큰 할인 이벤트에 많은 고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세부 할인 금액과 대상 차종 유무 등은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10월 아파트 청약 82만명…2005년 이후 최대

정부 중도금 대출규제 무색

정부가 이달 3일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월별 통계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금융기관 주도의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82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고 1순위 마감단지도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총 74개 단지에서 4만197가구의 새 아파트가 일반분양되며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월 기준 단지 수로도, 가구 수로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총 63곳으로 전체 단지의 85.1%를 차지했다. 전체 공급 단지중 월별 1순위 마감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2010년 2월 이후 6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9월까지 1순위 마감 비율은 50~60% 선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경남·북

도, 전남·북도 등 6개 광역시도는 지난달 공급된 새 아파트 모두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도 평균 33대 1로 올해들어 가장 높았고 부산은 평균 188대 1을 넘었다.

지난달 공급된 아파트에 신청한 1순위 청약자는 무려 82만840명에 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월별 청약자 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달 동안 5만2천446가구가 일반분양됐던 작년 11월의 청약자 수가 60만9천667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의 경우 공급물량은 1만가구 이상 적는데 청약자 수는 20만명 이상 많았던 것이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을 무색게 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달에 청약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단지와 인기 단지가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과열이 빚어진 것으로 본다. /김대성기자 bigkim@ 연합뉴스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일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친가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가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목포교육
지 원 청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안교육
지 원 청

목포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한국학원 목포시총연합회

한국폴리텍5대학
목포캠퍼스

목포과학대학교